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OECD 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삶의 질: 2017년 OECD 국가의 BLI 지표 (Better Life Index)를 중심으로

조 선 미¹

(연세대 소셜오믹스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지표생산·분석 팀장)

1. OECD의 삶의 질 지표 (Better Life Index) 소개

흔히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42,136 달러로 전 세계 중 20위¹를 차지하면서 경제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개인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 문제에서도 동등한 순위가 나타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성과에 있어 점차 물질적 지표로부터 탈물질적, 가치지향적 지표로 중요도가 이동하고 있다. OECD는 2011년부터 ‘삶의 질 지표 (Better Life Index, 이하 BLI 지표)’를 측정·개발함으로써 국가별 삶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공개한 OECD의 BLI 지표는 ‘부와 소득,’ ‘직업과 수입,’ ‘주거,’ ‘건강,’ ‘교육과 기술,’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 ‘안전,’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의 11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호에서는 OECD의 BLI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적·제도적 요건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BLI 지표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본 호는 OECD가 제공하는 BLI 지표 관련 주제 중 결측치가 많은 ‘일과 삶의 균형’의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주제의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국가별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로 환산하여 비교국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세부지표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² 본 호의 모든 자료는 OECD 통계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OECD 35개국 중 결측치를 제외한 22개국이다.

¹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e-mail: sunmicho@yonsei.ac.kr)

¹ 출처: OECD (2019),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dicator) 2018. doi: 10.1787/dc2f7aec-en (Accessed on 20 December 2019).

² 이하 BLI 지표에 대한 자세한 정의 및 원자료는 OECD에서 제공하는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및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1> OECD의 BLI 지표 (Better Life Index) 관련 세부지표

주제	세부지표
부와 소득 (income and wealth)	- 가계 순 가처분 소득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 가계순자산 (household net wealth)
직업과 수입 (jobs and earning)	- 고용률 (employment rate) - 상용직 기준 연간 평균 총수입 (average gross annual earnings) - 노동시장 불안정성 (labour market insecurity) - 장기 실업률 (long term unemployment rate)
주거 (housing)	- 1인 당 방 보유율 (Number of rooms per person) - 주거유지 관련 가계 지출 (housing expenditure) - 기본위생시설 부재의 거주 비율 (dwellings without basic facilities)
건강 (health status)	- 출생시점의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 주관적 건강 상태 (self-reported health status)
교육과 기술 (education and skills)	- 노동가능 연령대 성인의 교육성취도 (educational attainment) - 학생들의 인지적 기술 (students' cognitive skills) - 기대교육수준 (expected years in education)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social connections/community)	- 사회 연결망 지지도 (social network support)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 규제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 투표율 (voter turnout)
환경 (environmental quality)	- 대기오염 (air pollution) - 수질 만족도 (satisfaction with water quality)
안전 (personal security/safety)	- 살인 발생률 (homicides rates) - 홀로 야간보행시 안전감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출처: OECD. (2019). Better Life Index: Definitions and Metadata. OECD Statistics.

2. OECD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삶의 질의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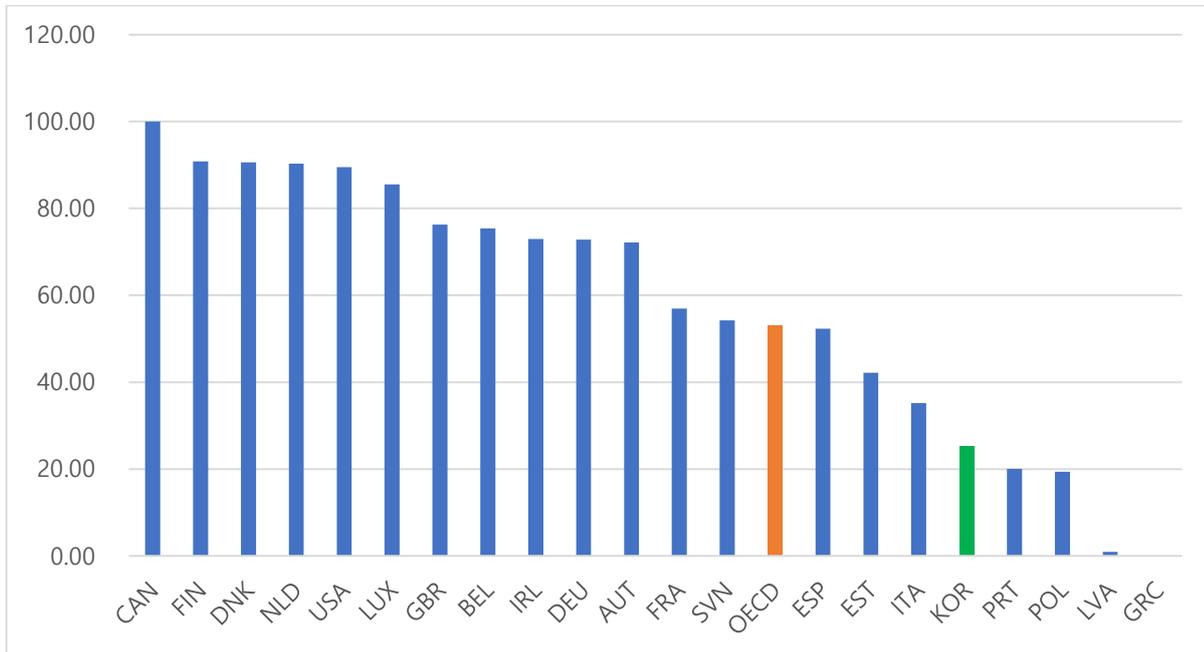
OECD Statistics에서 공개한 BLI 지표는 총 11개 주제의 24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호는 10개 주제의 22개 세부지표를 단일지표로 환산하여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국가별 BLI 지표값을 도출하였다. 본 호가 구성한 BLI 지표는 크게 (1) 총 BLI 지표와 (2) 10개의 주제별 BLI 지표로 나누어진다. 지표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2개의 세부지표를 표준화(Mean=0, SD=1)하였으며, 지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삶의 질과 반비례할 경우 음수값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표준화한 세부지표값을 각 주제별 합산 및 백분위 단위의 환산으로 주제별 BLI 지표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BLI 지표값을 다시 합산 및 백분위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총 BLI 지표값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국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표환산시 주제 및 특정 세부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두지 않았다.³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출된 총 BLI 지표는 <그림 1>과 같다.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총 100점 중 25.37점으로 전체 OECD 국가의 평균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점), 핀란드(90.86점), 덴마크(90.63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그리스(0점), 라트비아(0.93점), 폴란드(10.35점) 순이었다.

³ 본 호는 BLI 지표 환산에 있어,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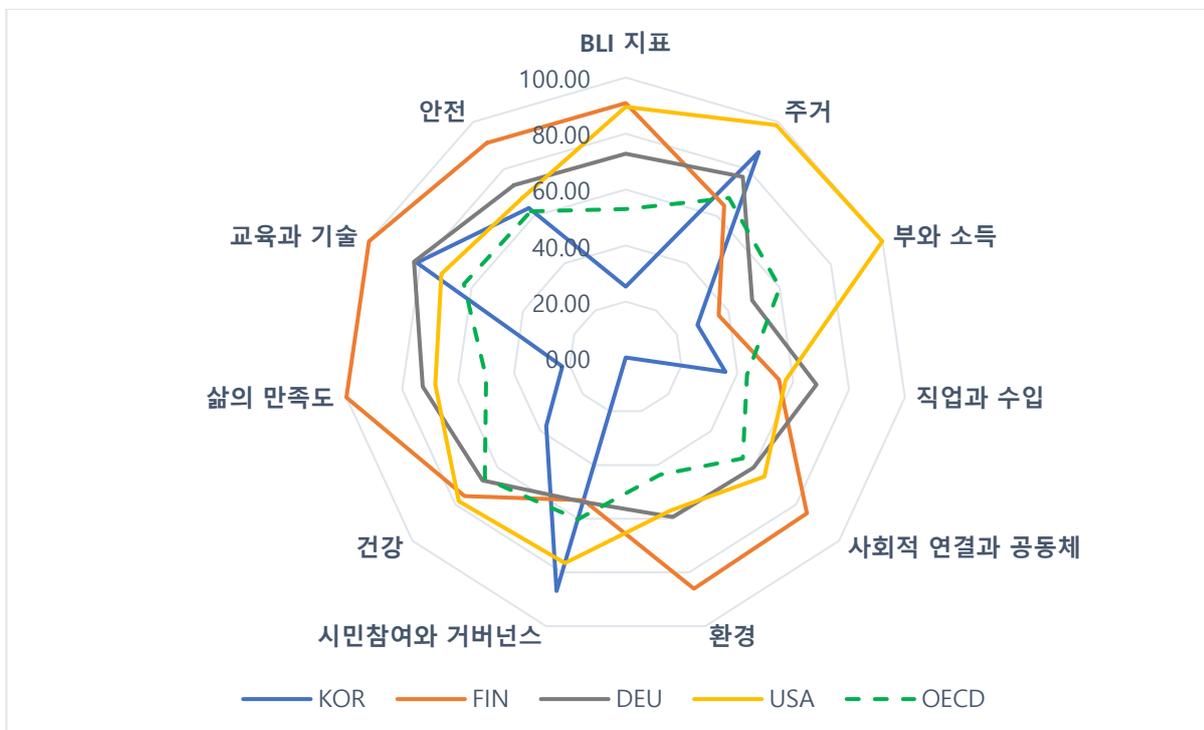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와 다른 방식의 지표화를 시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림 1> OECD 국가의 총 BLI 지표 비교



출처: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그림 2> BLI 지표와 주제별 국가비교



출처: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다음으로 <그림 2>에서 한국, 핀란드, 독일, 미국, OECD 평균을 대상으로 11개의 주제별 BLI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5개 분석대상 중 ‘주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교육과 기술,’ ‘안전’의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제에서 OECD 평균 이하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부와 소득(27.97점),’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0점),’ ‘환경(0점),’ ‘삶의 만족도(22.73점)’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BLI 지표가 높은 핀란드(90.86점)는 ‘부와 소득,’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OECD 평균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특히 100점을 나타냈다. 미국(89.54점)은 주로 ‘주거,’ ‘부와 소득’의 값에서 강세가 나타났으며, 독일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였다.

<표 2> BLI 지표에 따른 OECD 국가순위

순위	BLI 지표	주거	부와 소득	직업과 수입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환경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건강	삶의 만족도	교육과 기술	안전
1	CAN	USA	USA	LUX	DNK	FIN	KOR	CAN	FIN	FIN	SVN
2	FIN	CAN	LUX	NLD	FIN	DNK	NLD	IRL	DNK	DNK	FIN
3	DNK	KOR	GBR	DEU	IRL	CAN	GBR	ESP	CAN	EST	DNK
4	NLD	NLD	OECD	DNK	GBR	IRL	BEL	ITA	NLD	SVN	ESP
5	USA	IRL	CAN	AUT	LUX	EST	USA	NLD	AUT	CAN	NLD
6	LUX	BEL	BEL	GBR	CAN	NLD	CAN	LUX	IRL	BEL	CAN
7	GBR	SVN	AUT	USA	ESP	PRT	DNK	BEL	DEU	DEU	AUT
8	BEL	DEU	DEU	BEL	AUT	DEU	LUX	GRC	LUX	KOR	GBR
9	IRL	ESP	FRA	FIN	SVN	USA	ITA	USA	BEL	NLD	IRL
10	DEU	LUX	ESP	CAN	EST	GBR	EST	AUT	USA	POL	LUX
11	AUT	FRA	ITA	IRL	ITA	AUT	FRA	FRA	GBR	IRL	PRT
12	FRA	EST	FIN	FRA	NLD	LUX	OECD	FIN	FRA	LVA	DEU
13	SVN	OECD	NLD	SVN	USA	SVN	DEU	DNK	OECD	USA	FRA
14	OECD	PRT	DNK	OECD	BEL	LVA	FIN	GBR	ESP	GBR	BEL
15	ESP	AUT	IRL	EST	DEU	FRA	POL	SVN	POL	AUT	USA
16	EST	FIN	KOR	KOR	FRA	BEL	ESP	DEU	ITA	OECD	POL
17	ITA	DNK	PRT	PRT	OECD	OECD	AUT	OECD	SVN	GRC	EST
18	KOR	GBR	SVN	LVA	PRT	ESP	SVN	PRT	KOR	FRA	KOR
19	PRT	ITA	POL	ITA	LVA	POL	LVA	POL	LVA	ESP	OECD
20	POL	GRC	EST	POL	POL	ITA	GRC	KOR	EST	ITA	GRC
21	LVA	POL	GRC	ESP	GRC	GRC	IRL	EST	GRC	LUX	ITA
22	GRC	LVA	LVA	GRC	KOR	KOR	PRT	LVA	PRT	PRT	LVA

출처: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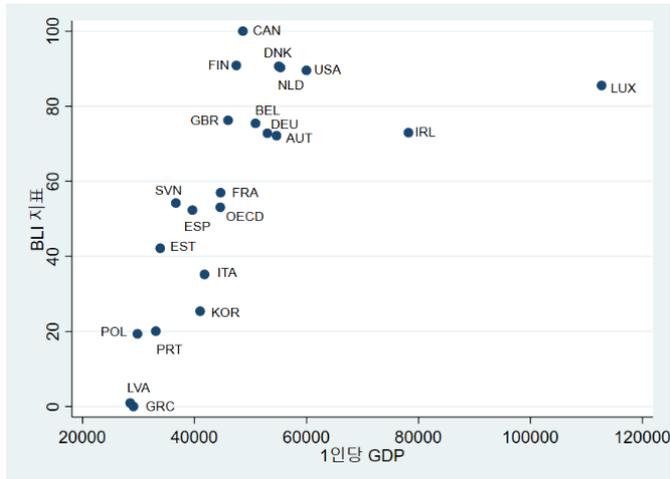
<표 2>는 BLI 지표의 전체 값 및 각 주제별 국가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결측치로 제외된 국가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BLI 지표는 다른 경제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는 지표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아래부터는 BLI 지표를 통해 측정된 삶의 질 수준을 각국의 경제적 발전수준, 사회복지수준, 사회불평등, 인구 및 여성에 관한 특징을 반영하는 다양한 거시국가적 요인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성장 규모

BLI 지표는 물질적 경제발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대체로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림 3>은 1인당 GDP와 BLI 지표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BLI 값이 나타났다. BLI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이 대부분 국가의 소득수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발전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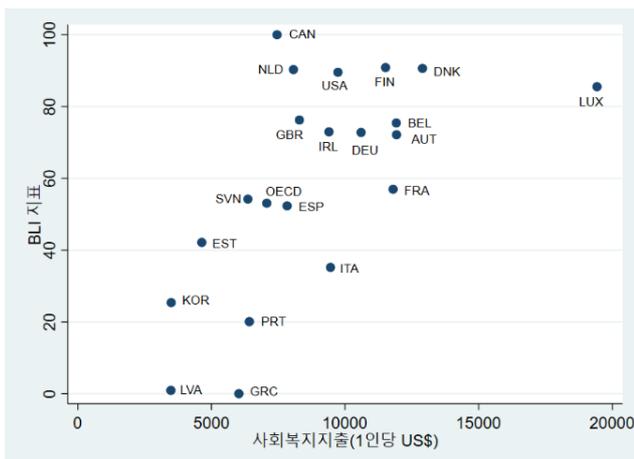


출처: 1.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2. OECD (2019),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dicator) 2017. doi: 10.1787/dc2f7aec-en (Accessed on 20 December 2019).

(2) 사회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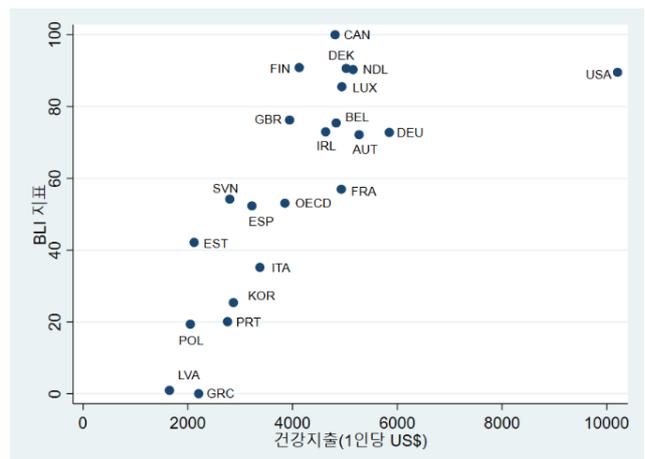
BLI 지표와 사회복지지출(social spending)과 건강지출(health spending)의 규모와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사회지출의 규모가 높을 때 BLI 지표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사회복지지출



출처: 1.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2. OECD (2019), Social Spending (Indicator) 2017. doi: 10.1787/7497563b-en (Accessed on 20 December 2019).

<그림 5> 건강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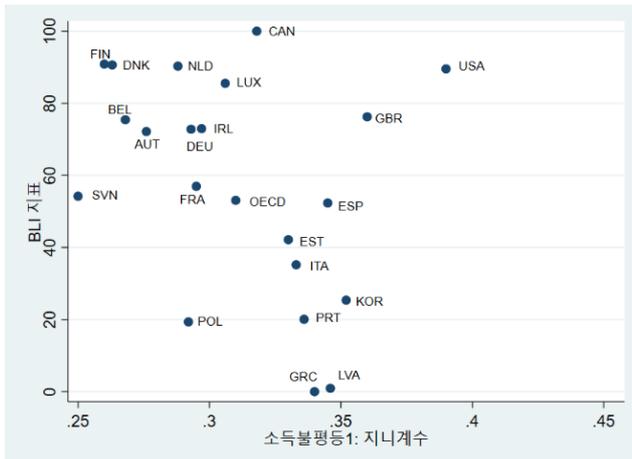


출처: 1.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2. OECD (2019), Health Spending (Indicator) 2017. doi: 10.1787/8643de7e-en (Accessed on 20 December 2019).

(3) 소득불평등

BLI 지표와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상위 10% 대비 하위소득 10% 비율)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체로 BLI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소득불평등과 BLI 지표가 모두 높은 국가들(미국 등)과 반대로 모두 낮은 국가들(폴란드 등)이 존재했다.

<그림 6> 소득불평등 1: 지니계수



<그림 7> 소득불평등 2: 상위 대비 하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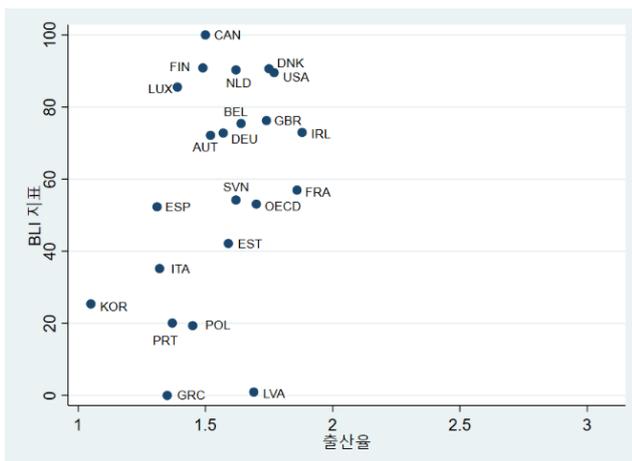


출처: 1.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2. OECD (2019), Income Inequality (Indicator) 2015. doi: 10.1787/459aa7f1-en (Accessed on 20 Decem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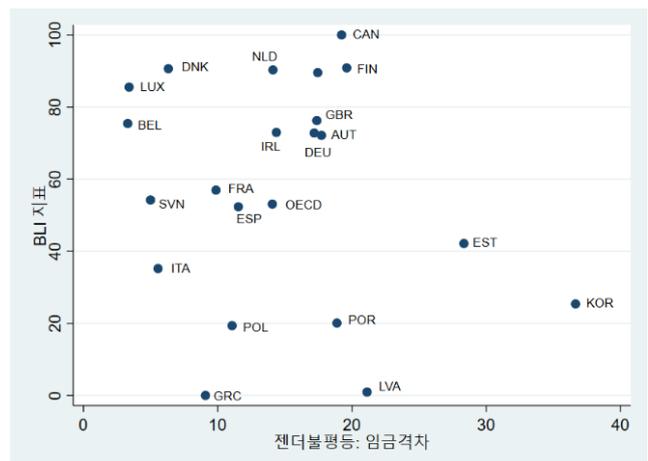
(4) 인구 및 여성

인구 및 여성관련 지표로서 출산율과 젠더불평등의 수준을 나타내는 성별임금격차를 선별하여 삶의 질 수준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BLI 지표와의 양의 관계를, 성별임금격차는 음의 관계를 미약하게 유추할 수 있었으나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8> 출산율



<그림 9>젠더불평등: 임금격차



출처: 1.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2. OECD (2019), Fertility Rates (Indicator) 2017.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20 December 2019).

출처: 1.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2. OECD (2019), Gender Wage Gap (Indicator) 2017. doi: 10.1787/7cee77aa-en (Accessed on 22 December 2019).

3. 건강한 개인, 행복한 개인을 위한 국가의 조건: 시사점과 제언

본 호에서는 OECD의 BLI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현황 및 특성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BLI 지표를 통해 도출된 국가별 삶의 질의 수준이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시지표들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타 OECD 국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삶의 질 수준이 나타났고, 특히 ‘부와 소득,’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도’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반면 ‘주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낮은 가구소득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망 형성의 부족, 질 낮은 환경과 삶의 만족도로 인해 양질의 삶을 누리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BLI 지표와 타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1인당 GDP	복지지출	의료지출	소득불평등1: 지니계수	소득불평등2: 상/하위10%	출산율	젠더불평등: 임금격차
BLI 지표	0.63**	0.63**	0.73***	-0.35	-0.48*	0.40	-0.19
주거	0.58***	0.57***	0.71***	-0.19	-0.17	-0.30	-0.01
부와 소득	0.68***	0.62**	0.77***	0.15	0.04	0.18	-0.19
직업과 수입	0.66***	0.58***	0.65***	-0.33	-0.42*	0.02	-0.07
사회적 연결	0.55***	0.56***	0.50**	-0.49**	-0.57***	0.04	-0.29
환경	0.49**	0.52**	0.56***	-0.50**	-0.57***	-0.12	-0.09
시민참여	0.23	0.23	0.25	-0.20	-0.20	0.15	-0.04
건강	0.56***	0.56***	0.60***	-0.25	-0.28	0.15	-0.29
삶의 만족도	0.58***	0.53***	0.64***	-0.40**	-0.48**	0.27	-0.10
교육과 기술	0.28	0.35*	0.42*	-0.53**	-0.48**	-0.27	0.15
안전	0.56***	0.61***	0.55***	-0.61***	-0.63***	-0.21	-0.06

주: * p<0.05, ** p<0.01, *** p<0.001

출처: OECD (2019), Better Life Index 2017. OECD Statistics (Extracted on 12 Dec 2019).

한편, OECD의 BLI 지표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국가적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BLI 지표값은 <표 3>의 결과와 같이 GDP나 사회보장지출, 소득불평등과 같이 경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대체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국가들이 삶의 질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참여’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반면, 출산율과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에 한할 때) 일상적 삶에 대한 정책적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와 성별 임금불평등과 같은 젠더 관련 지표에서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OECD의 BLI 지표가 단순히 경제적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유사지표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좀 더 질적인 삶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척도들이 통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젠더 관련 지표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형평성, 포용성, 사회적 통합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들은 직접 물질적 번영과 관련이 없음에도 한 국가의 사회적 삶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를 나타내는데 충분히 유용하고 중요도 높은 지표로 파악된다. 둘째, 일부 지표들은 개별국가의 실제 경험적 현실과 괴리감을 나타낸다.

예컨대, 한국 경우 실제 국민들이 실감하는 주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석국가 중 주거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가 개인의 삶에서 갖는 가치와 인식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짐작되며, OECD의 세부지표가 실제 각국의 경험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민감도를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BLI 지표의 하위지표는 개인들의 '사회적 삶'에 관한 질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의 지표는 소득,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경제적 인프라 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국가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인들의 사회적 삶에 대한 건강함과 풍부함을 나타내는 지표의 경우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주제를 구성하는 3개의 하위지표를 제외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BLI 지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산업화 및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비 OECD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비 OECD 국가의 삶의 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표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OECD가 제공하는 BLI 지표는 삶의 질 관련 국가비교지표로서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향후 우리사회가 물질적 번영을 넘어 탈물질적, 가치지향적 번영과 균형, 공생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OECD의 BLI 지표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질적 성장을 반영하는 경험적 시도를 통해 국제사회 속의 위치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